

KIA “이종범·김진우 힘내라”

“4강행 최대 고비를 만났다” 프로야구 막판 레이스인 ‘우천 리그’가 이번 주부터 내달 2일까지 27일동안(84경기) 대 장정에 돌입한다.



27일간 ‘우천 리그’ 돌입 0.5 게임차로 불안한 4위 금주 삼성·롯데전 고비

는 점도 약하다. 여기에 롯데전에 앞서 7, 8일 광주에서 열리는 ‘선두’ 삼성과의 경기도 힘겨운 대 접전이 예상된다.

KIA는 최근 막강 선발진 중 ‘좌완특급’ 전병두가 제구력 난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강철민은 이미 팔꿈치 수술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등 마운드의 전력 누수마저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약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5일 대전서 열리는 ‘천적’ 한화와

의 단판 대결(상대 전적 5승 10패)에선 부상에서 돌아온 ‘토종 특급’ 김진우가 출격, 시즌 9승에 도전한다. 또 지난 8월 초 선발에서 볼펜으로 보직을 바꾼 신인 한기주의 활약이 돋보이고 마무리 윤석민의 뒷문 단속도 철저하다.

특히 지난달 22일 1군으로 올라온 4년차 ‘사이드암’ 신용운의 부활투도 답답한 KIA 마운드에 위안이 되고 있다.

신용운은 복귀 후 5경기서 중간계투로 등판, 14.1이닝을 던져 피안타 11개와 탈삼진 7개, 1실점, 평균자책점 0.63으로 ‘호투행진’ 중이다.

타선에선 호타준족 타타자인 이용규(타율 0.320)와 최근 1군에 복귀, 몰오른 타격감을 뽐내고 있는 이종범의 활약이 큰 힘이다.

시즌 막판 힘겨운 4강 싸움을 벌이고 있는 KIA가 이번 주 김진우·이종범의 ‘북귀쇼’에 힘입어 안정적인 4위 자리를 확보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또 소렌스탐 때문에” 정일미·이선화 3위

LPGA 스테이트팜클래식 최종

생애 첫 우승에 도전했던 ‘왕언니’ 정일미(34·기아골프)와 시즌 2승째를 노렸던 ‘막내’ 이선화(20·CJ)가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사진)의 벽에 막혀 분투를 삼켰다.

정일미와 이선화는 4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레일골프장(과 72·6천64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테이트팜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쳐 나란히 3언더파 69타씩을 쳤지만 10타를 줄인 소렌스탐에 3타차 우승을 내주고 공동 3위에 그쳤다.

소렌스탐은 보기없이 10개의 버디를 쓸어 담아 1991년, 1997년, 2004년 등 3차례 나왔던 코스레코드(62타) 타이 기록을 세우며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시즌 3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옛 천하장사 이만기씨 씨름연맹서 영구 제명



씨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전 천하장사 이만기(43·인제대 교수·사진) 씨가 모래판에서 영구 제명됐다.

한국씨름연맹은 4일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씨름연맹 행정

에 대한 대안없는 비난 발언 등의 책임을 물어 이만기씨를 최고 징계 수위인 영구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수용 씨름연맹 상벌위원장은 “이만기씨에 대한 영구 제명은 연맹 상벌규정 제 15조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품위실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총알 탄 사나이’ 파월

아사파 파월이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시즌 여섯 번째 골드리그 레이스 대회 남자 100m에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화)
- ▲US 오픈 테니스(아빌리에 모레소모-제리나 윌리엄스)(08:00·Xports)
- ▲제1회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15:00·KBS SKY Sports)
- ▲일본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7:45·Xports)
- ▲프로야구<KIA-한화>(18:00·KBS SKY Sports), <SK-현대>(18:00·SBS스포츠), <삼성-롯데>(18:30·MBC ESPN)
- ▲AFC U-17 챔피언십(네팔-한국)(21:00·Xports), (22:00·SBS스포츠)
- 6일(수)
- ▲US 오픈 테니스(00:00·Xports)

KIA 이용규·윤석민 ‘태극마크’

■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대표팀 22명 확정

이승엽·추신수 제외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골격이 완성됐다.

대한야구협회와 KBO는 4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2차 국가대표 선수선발위원회를 열어 이용규(21)와 윤석민(20·이상 KIA), 류현진(19·구대성(37·이상 한화) 등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표팀 최종 엔트리 22명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예비 엔트리 31명에 들었던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예비 엔트리에 없던 구대성이 추가 발탁의 영예를 안았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류현진과 구대성(이상 한화)을 비롯해 오승환(삼성), 손민한(롯데), 윤석민(KIA), 이해천(두산), 장원삼, 신철인(이상 현대), 정민혁(연세대) 등 9명이다.

포수는 홍성흔(두산), 강민호(롯데) 2명이고, 내야수는 이대호, 박기혁(이상

롯데)과 김동주, (두산), 박진만, 조동찬(이상 삼성), 정근우(SK) 6명, 외야수는 이용규(LG), 박재홍, 이진영(이상 SK), 이용규(KIA), 이택근(현대) 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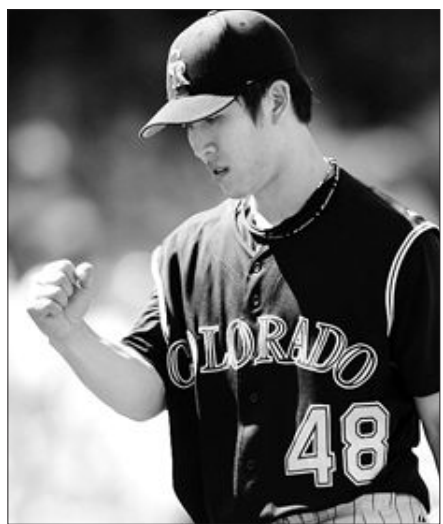
구단별로는 롯데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두산·SK가 각 3명, KIA·한화 각 2명, LG·연세대 각 1명 순이다.

병역 미필자는 신철인, 장원삼, 류현진, 윤석민, 이해천, 정민혁(이상 투수), 강민호(포수), 조동찬, 정근우, 이대호, 박기혁(이상 내야수), 이택근, 이용규(이상 외야수) 13명이다.

선발위원회는 선수들에 대한 도핑테스트를 마치고 대한체육회에 엔트리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대표팀 사령탑 김재택 현대 감독은 “추신수는 아직 기량을 잘 모른다. 국내에 미필자도 많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승엽은 불참 의사를 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하고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투수가 필요했다”며 구대성의 발탁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현 ‘5전6기’ 8승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5전 6기’ 끝에 시즌 8승을 거뒀다.

김병현은 4일(이하 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와 6.2이닝을 8피안타 2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김병현은 이로써 지난 달 3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7승을 거둔 뒤 한 달 6경기만에 8승(10패)째를 올렸다. 4연패 늪에서도 빠져 나왔다.

구단에서 흘러나오던 ‘불은 좋지만 자꾸지는 수수께끼’, ‘선발 잔류 시험’ 등 씁쓸한 얘기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

콜로라도는 12-5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인복지교육사 / 케어복지사

특별강좌 개설

노인수발보험법 및 각종 신진복지제도 시행! -그림과 사대의 최고 유행특종-

합격보장 화원제

전문교육법인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062) 522-8600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oGAGU.com

한보가구 (062) 522-8600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www.touchkorea.com

062) 522-8600